



포항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16일 오전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도내 피해피악 및 도민 안전대책 대응체계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전북, 지진발생 대비 비상사태 유지

송하진 지사 "분야별 대비책 철저히 점검해야" 주문

전북도는 경북 포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6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도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소방, 건설,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비책을 철저히 재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보다 강도는 약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더 크다"며 "도민들이 각 재난 상황별 행동요령

이 평소 숙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 시설의 내진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내 시설물의 내진보강 위한 수정예산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관에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수확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행정 지원사항을 비롯

해 겨울철 설해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도청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비상 1단계 종료시까지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지진관련 피해조사, 재해 취약시설 예찰·점검활동, 상황 모니터링, 여진대비 홍보문자 발송 등 지속적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내진 민간건축물 100곳 중 7곳 불과

학교는 23.1%... 정동영 의원 "내진보강 시급... 지진예산 확충해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점이 확인되었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며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글에서 이번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포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

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6,111개소 완료되어 내진률 43.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 전문가는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원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발표한 점을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병헌 靑 정무수석 비서관 자진 사퇴

과거 보좌관의 흡소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5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5월14일 임명된 뒤 6개월여 만에 수석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러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돼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열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누가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지

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e스포츠와 게임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역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표정으로 춘추관에 들어선 전 수석은 미리 준비해 온 사퇴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중간 중간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과거 보좌관을 언급하기에 앞서서는 호흡을 한 번 가다듬었다. 1분30여초의 짧은 입장문을 모두 읽은 전 수석은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전 수석은 차에 오르기 전 "수고들 하시라"는 한 마디를 남긴 채 춘추관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전북산 햇김 수확 본격 시작

전년비 생산량 2754톤 증가

도내 물김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위판장에서 도내 첫 물김 위판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김에 대하여 위판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김 양식은 군산·고창·부안지역 214여개가 4.815ha의 양식장에서 연간 3만5,770톤의 물김을 생산하여 약 470여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전망이다. 이는 전년보다 시설면적은 231ha이 늘었고, 생산량은 2,754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김은 선택과 활력이 우수하여 전남 완도나 충남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물김보다 높은 시세인 kg당 1,100원~1,400원에 위판가격이 형성되어 겨울철 김 양식어가에게

큰 소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양질의 물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가의 영양염 분석·수온 정보 등 해수 모니터링(1회/월)을 강화하고, 김 염체 분석 자료를 어민에게 제공(1회/주)하는 등 갯벌 발생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김 황성처리제(432백만원) 및 물김포대(158백만원)를 지원하여 어업인인 안정적으로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타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 가공시설(군산시수협, 70억원) 확충 등 산지가공시설을 확대 시설하고, 김 양식어장 확대를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내 김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수능 응시 출타장병에 공가 '최대 4일'

국방부는 16일 시행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수능시험에 응시한 출타한 장병은 공가를 최대 4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휴가를 사용해 이번 시험에 응시한 장병들은 공가로 휴가를 보상받게 된 셈이다. /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한영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